

파워eQ로 비유초기 에너지 향상

- 장기적 목장 생산성 향상 위해, 비유초기 관리 필수
- 분만 직후인 비유초기우를 위해 태어난 에너지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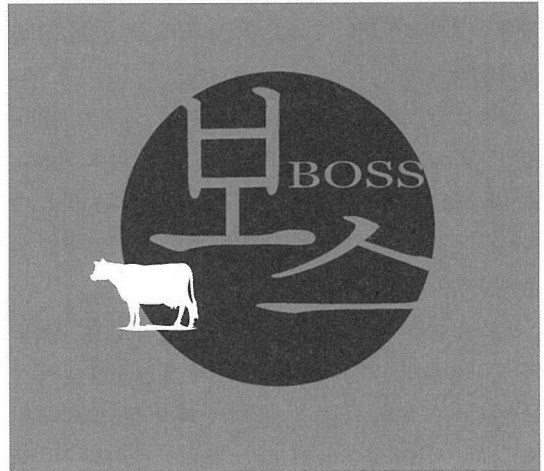
(주)선진(www.sj.co.kr/ 사장 이범권)은 비유초기우를 위한 고품격 에너지 사료 '파워eQ'를 출시했다.

오늘날 목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세계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생산성 향상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착유 소들의 '비유 초기' 관리이다.

비유초기는 1년 유량 생산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면서 다시 수정에 들어가 번식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분만 후 유량 생산은 많은 것에 비해 섭취량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 등에 시달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사성 질병은 착유우들의 살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하며, 무기력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능력우일수록 유량생산량과 에너지 섭취량의 불균형으로 '에너지부족'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이 때 고능력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번식 성적이 저하되고 산유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능력을 도태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목장의 비유초기 관리는 목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선진에서 이번에 출시한 '파워eQ'는 이 같이 중요한 비유초기우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파워eQ'는 분만 후 건강 관리와 수정 및 임신에 위한 번식 생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먼저, 분만직후 산유량 증가



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회전분을 강화하였다. 이는 혈중 포도당을 높여 분만직후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영양소로서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비유초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필수 지방산의 하나인 리놀레산(Linoleic acid)를 강화하여 난소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임신유지가 가능하게 한다.

선진 마케팅실에서는 제품 출시 전 낙농 사양가를 대상으로 '파워eQ'의 성과 검증을 위한 신제품 체험을 실시했다. 제품 시연에 참여한 목장 중 52%는 '파워eQ'의 기호성이 매우 좋으며 효능이 우수하다고 이야기 했으며 97%는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진 마케팅실 강정윤 팀장은 "비유초기 착유우가 많은 목장, 고능력우가 많은 목장, 번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장, BCS가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진 착유우가 있는 목장에 가장 적합한 영양제"라며 "보스 파워eQ를 통해 관리해보면 그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일 것"이라며 자신 있게 권했다.

대한제당

TS대한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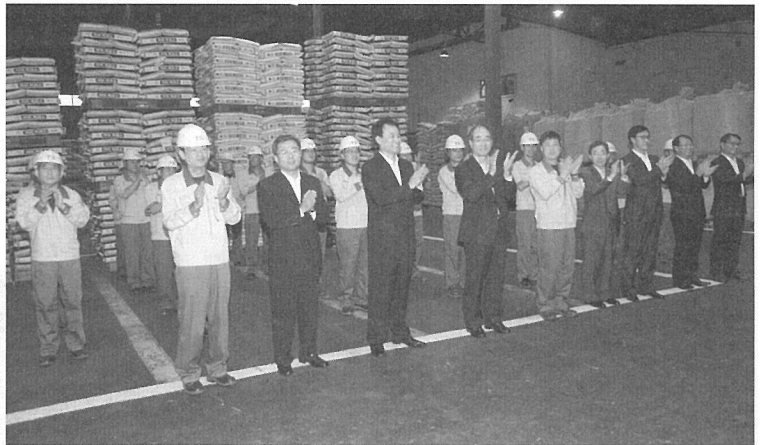
2012년 8월 20일 사료 누적생산 2,000만톤 달성



무지개사료는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풍요로운 축산, 건강한 식품문화를 창조하는 한국축산업의 주역이 된다'라는 사명과 '한국 축산업계의 리더이며 고객의 첫 번째 선택이 된다'의 핵심미션을 원동력으로 2,000만톤을 향해 달려왔다.

1979년 5월 1일 600톤 생산 규모의 인천사료공장을 준공한 이후로 무지개사료는 2012년 8월 20일 누적생산 2,000만톤을 달성했다.

3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여 달성한 2,000만톤은 25kg 지대로 환산하면 800,000,000포이고 이를 일렬로 늘어뜨리면 640,000km로 지구둘레 (40,008km)를 16바퀴를 돌



수 있고 서울에서 부산을 702번 왕복하는 거리와 비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룬 종합축산기업으로서의 기반과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무지개사료는 한국 축산업계의 리더가 되고 글로벌 종합 축산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